

Korea Society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

- 미국 중간 선거의 영향, 그리고 한미 동맹 -

2022. 12. 19. 정상훈 미국(뉴욕) 입법관

1 간담회 개요

- 주관 : Korea Society
- 개최일시 : 2022. 12. 8
- 주제 : 미국 중간선거의 영향, 그리고 한미 동맹
(The impact of the U.S. Midterms and U.S.-Korea Alliance)
- 참가자
 - Russ Carnahan (Former Representative (2005-2013), 민주당-미주리)
 - Ted Yoho (Former Representative (2013-2021), 공화당-플로리다)
 - Yeo, Han-koo (Former Minister for Trade of Korea (2021-2022))
 - Thomas Byrne (Korea Society President and CEO)

2 대담 내용 (요약)

- Topic 1 : 중간선거 관련
 - (Thomas) 중간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 (Ted)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를 봤을 때, 매번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변동이 매우 큰데, 그로 인해 동맹국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외교, 국가안보, 무역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아닌 객관적인 방식의 정책 결정이 필요함.
 - (Russ) 두 정당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름. 민주당의 선전은 팬데믹 이후 경제와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환경문제에 중점을 둔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이며, 공화당은 제대로 된 후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각 정당이 평가하고 있음.

○ Topic 2 : 새로운 리더십 이슈

- (Thomas) 최근 양당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Ted)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도부에서 물러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훌륭한 의원들이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당에 새롭고 잠재적인 힘이 될 것임.
- (Russ) 공화당에서도 케빈 매카시가 새로운 리더로 주목 받고 있음. 누가 되었던 새로운 지도자는 분열된 파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Topic 3 : IRA

- (Thomas) 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IRA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 (Ted) 최근 IRA와 같은 미국의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음. 첫째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의 흐름을 바꾸기 위함이며, 둘째로 미국이 안정되고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함임. 이것은 곧 미국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동맹국으로서 더 강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좋은 무역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임. 결국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맹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평가함.
- (Russ) 최근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위기를 겪어오고 있음. IRA는 미국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에 대한 견제도 IRA의 목적이 될 것임.
- (Han-Koo) 최근까지만 해도 한미 관계는 서로 win-win 관계였지만, IRA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기업의 국적에 따라 그 기업을 차별하지 않음.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FTA 및 WTO의 의무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IRA의 내용은 좋지 않다고 생각함.
- (Ted & Russ) IRA는 아직 과도기에 있는 정책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임. 중국이 최근까지도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비즈니스 행위 등을 해오면서 애플과 같은 큰 회사들이 중국에서 떠나고 있음. 이러한 강경한 흐름과 압박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중국의 태도를 기대하고 있음.

○ Topic 4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 (Korea Society Member) 아태지역 경제 공동시장과 WTO 체제 개편을 위해 시작한 TPP에서 미국이 지난 2017년 탈퇴했는데, 이러한 보호주의 행보는 어찌면 IRA와 연관이 있어 보임.
- (Han-Koo) 미국이 탈퇴를 했지만 다시 멤버로 돌아와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준다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 것임. 또 비슷하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IPEF를 이용해서 기존의 FTA 협정을 개선하고,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함.
- (Ted & Russ) 장기적으로 TPP나 IPEF와 관련된 더 나은 정책들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함. 미국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알고 있음.

○ Topic 5 : Friend Shoring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끼리 핵심기술 및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

- (Ted & Russ) 핵심 광물들이 한정된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경우가 많음. 콩고 민주공화국(DRC)의 경우, 배터리에 필요한 Colbat의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분 중국이 컨트롤 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콩고에게 있어 더 나은 대안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 중임.
- 일부 부패한 나라의 정치가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받아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협력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도 많음.
- 원자재는 있지만 그것을 개발할 자본이 부족한 국가들이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국도 국가 간의 협상을 간소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물로 그 국가들이 미국을 중국의 대안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임. 실제로 720억 달러 이상이 이러한 일을 위해 쓰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막아서는 큰 힘이 될 것임.

○ Topic 6 : Africa Specific

- (Han-Koo) IT 기술혁명으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휴대폰 등 최첨단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아프리카 국가 내부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임.

- (Ted & Russ) 아프리카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20%로 증가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음. 아프리카 경제 규모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와 공급망을 개선하고, 미국이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산업에 개입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광물산업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 이는 IRA를 포함하고 있는 Build Back Better Plan(BBB)을 토대로 미국이 자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는 이유이며, 이를 위해 미국 국가채무 문제 등 국내 현안을 능동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것임.